"소통·도전 화두로 쇄신"… 플랫폼 사업·ESG경영 '올인'

2023 금융의 위기와 기회

❺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비상한 아이디어에 주목할 것
잘 할수있다는 것 보여주고파"

PCAF·SBTi·CDP 등 가입완료
ESG 경영 통해 먹거리창출 나서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NH디지털 얼라이언스 펀드 설립 이미지. /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는 미래의 금융서비스 선도를 목표로 올해 신사업 구상에 몰두한다. 이석준 신임 회장은 소통과 도전을 화두로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물론 자회사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틀을 깨고 비상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을 주목하겠다. 세계 최초의 금융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시도하면 좋겠다"며 "'농협은 불가능할거야'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임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나섰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넷플릭스(Netflix)와 쳇GPT(chatGPT)를 비교하며 플랫폼 시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플랫폼 시장 진입을 예고한 만큼 그간 농협금융이 쌓아온 관련 기술력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금융과 협약은 맺은 ESG 금융 국제기구. /각 기구

◆ 플랫폼 사업 무게… "기술과 인프라 갖췄다"

지난해 농협금융은 IT익스퍼트(IT eXPERT) 대회를 개최했다. 'IT 개발자 우대문화'를 중심으로 기술 강화를 예고한 것. 전 계열사 핵심 IT기술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농협금융은 은행업권 최초로 업무용 컴퓨터(PC)에 안면인증 기술을 적용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지키고 있는 만큼 보안에 있어 내실을 강화한 것. 안면 인식 기술은 편의성 제고와 함께 보안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PC 로그인 시 비밀번호는 불필요하며 안면인식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영업점 직원들의 업무편의성과 보안을 개선했다.

디지털 전략 투자(SI)펀드 또한 설립했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했다. SI펀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로 결성했다. 혁신기술 스타트업과 예비유니콘, 플랫폼 사업자 등 다방면의 디지털 선도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한다.

SI펀드의 구상안에 따르면 NH벤처투자와 NH투자증권이 공동(Co-GP)으로 맡고 농협은행과 NH농협캐피탈이 출자자(LP)로 참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동일규모 2호 펀드를 결성해 총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NH디지털 얼라이언스 펀드(가칭)'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외부 생태계와의 과감한 협업'을 강조했다. SI펀드의 취지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규제혁신 정책과 금융산업·기술변화에 대응 ▲새로운 발전 기회 모색 등을 공유한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개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SI펀드 활용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 ESG경영·지속가능경영 지향

농협금융은 ESG경영을 통한 먹거리 창출을 꾀한다. 협동조합의 취지를 살려 지속가능경영에 무게를 둘 필요성이 높은 것. 농협금융은 탄소중립 달성과 ESG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국제협약인 '탄소 회계 금융의 파트너쉽(PCAF)',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인터넷 제로 은행 동맹(NZBA)' 가입을 완료했다. '금융의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 하겠다는 취지다.

농협금융은 ESG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내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위원회'와 지주 회장 주관 협의회의 구동체계 하에서 단계적인 국제협약 가입을 추진했다. 전사 차원에서 진행 중인 농협금융 기후관련 재정공시 태스크포스(TCFD) 이행 고도화 등을 진행했다. 이에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목표 수립 ▲탄소중립 달성 전략 마련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의 3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실제로 농협금융은 지난해 TCFD 지지선언 이후 내부탄소배출량 측정을 완료하고 TCFD 이행 로드맵 수립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회장은 "함께 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 하에 범농협이 함께 하는 시너지 경쟁력을 기반으로 농협금융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 농협금융, 자회사 소통 강화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자회사와의 소통 행보를 강조하며 임직원들의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실패를 성공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것.

그는 "중앙회, 경제지주 등 내부사업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혼자만으로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금융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농협금융이 농협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촉매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계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혹한기 KB만의 핵심경쟁력 활용 회복탄력성 높여야"

윤종규 KB금융 회장, 경영전략회의 'R.E.N.E.W 2023' 중심 목표 설명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2023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앞으로 다가올 혹한기에도 KB만의 핵심경쟁력을 활용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6일 '2023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는 지주 경영진과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등 12개 계열사 경영진 등 총 270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회장은 2023년 경영전략방향인 'R.E.N.E.W 2023'을 중심으로 경영진이 최우선적으로 염두해야 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R.E.N.E.W 2023'은 ▲핵심경쟁력 및 회복탄력성 강화(Reinforce the Core&Resilience) ▲글로벌&신성장 동력 확장(Expansion of Global & New Biz) ▲금융플랫폼 혁신(No. 1 Platform) ▲지속가능경영 선도(ESG Leadership) ▲인재양성 및 개방적 창의적 조직구현(World class Talents & Culture) 이다.

윤 회장은 우선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대비해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개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부리로 깃털과 발톱을 뽑아내 환골탈태하는 것처럼 KB도 다가올 혹한기에 KB만의 핵심경쟁력을 활용해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끈덕지고 담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전환과 그린 전환 등 새로운 시대적 기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KB스타뱅킹, KB페이(Pay), KB월렛(Wallet)은 물론 부동산, 헬스케어, 모빌리티 영역을 강화해 No.1 생활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자"고 했다.

윤 회장은 "KB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우리의 미션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디지털 기반 금융혁신 전문영역 확대 할 것"

최유삼 신용정보원장 취임

"디지털·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양질의 신용정보를 확충해 전문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최유삼(사진) 신용정보원장은 9일 취임식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최 원장은 기업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금융 인공지능(AI)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신용정보를 확충해 전문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진화하는 보안위협에도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신용정보원 IT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에 주력하겠다"며 "임직원 모두가 디지털 전문가로 탄탄한 업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대광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금융위 공정시장과장·금융소비자과장·자본시장조사단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 8일까지 3년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월간 카드승인액 76.4조… 1.92%↓

여신금융협회, 국내여행 줄어들고 日 하늘길 열려 해외여행객 증가세

지난해 11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전월(10월)과 마찬가지로 소폭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본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객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전반적인 내수 시장은 움츠러든 모습이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92조3000억원으로 10월 93조9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1.7%)감소했다.

11월 개인카드 승인 금액은 76조4000억원이다. 10월 77조9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1.92%) 감소했다. 법인카드 전체 승인금액은 10월 16조1000억원에서 11월 16조원으로 1000억원(0.62%) 줄었다. 한 달 사이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모두 소비가 축소된 모습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통상 11월과 10월은 유사한 소비 양상을 나타낸다. 휴가 시즌 종료 이후 별다른 행사나 축제 등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분류별 카드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여행은 축소한 반면 해외여행객은 증가했다. 휴가 기간이 모두 끝났지만 일본이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행객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산 기자